

핵언급, 북미협상 재개 '실마리'... 사실상 불가침 합의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전역 전쟁위협 없애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수십년 적대역사 끝장위해 합의”



영구폐쇄하기로 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연합뉴스

남북이 서로를 겨누던 총부리를 거두고 주요 핵시설도 폐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전'의 문턱을 닦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백화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9월 평양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남북은 오늘 한반도 전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수십년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 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며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 ▲ 미국의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른 상응 조치 후속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의 긴밀한 협

의 등 3가지 합의가 담겼다. 앞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층 진전된 모습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 5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화성기를 철수했다. 같은 달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외신을 불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북핵 폐기 합의는 북한의 선제적 핵 폐기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 오던 북미간 협상 재개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역 적대 청산 ‘사실상 불가침 합의’ 육·해·공 전반에 걸친 남북 간 적대 구도 역시 청산돼 불가침 합의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날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간의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초보적 단계의 군비 통제를 시작한 셈이다.

우선 남북은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멈춘다. 이날부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국방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야외기동훈련은 군사분계선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도 사라진다. 남북은 시범 조치로 상호 1km 근접한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무장을 해제한다.

해상에서는 약 80km에 이르는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정하고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 훈련을 중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북측 통천 이남 수역이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문은 폐쇄한다.

◆우발 충돌 방지 ‘경고방송’…민간기 제외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복원 이행한다는 설명이다.

공중의 경우,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 비행 금지구역에서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한다. 고정익 항공기는 동서부 각각 40km와 2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회전익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서부 각각 15km와 10km로 적용한다. 비행금지 구역은 민간 여객기와 화물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남북은 우발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 5개 단계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과 신호 → 차단 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북은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산발 진화나 환자 후송, 기상 관측과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합인심을 달고 사는게
 할인의 정석

결핵 등 보건의료지원 물꼬

감염병 관리·모자보건 중심 추진

남북 정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다시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북한이 대응 능력을 상실한 감염병 관리와 모자보건 등을 중심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은 561명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834명)과 레소토(788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환자의 상당수가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돼 치료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이 끊기자 북한은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세계기금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세계기금이 최근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한발 슈퍼결핵’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방역체계 붕괴와 백신 부족으로 수인성 질환과 신종 전염성 발생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협력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남북이 앞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본격화하면 전염병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감염병이 유입될 경우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파견한 인력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카드의 정석 DISCOUNT

카드 어디서나 실적 조건없이 할인 받는 카드

카드의 정석

할인의 정석

카드의 정석 DISCOUNT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전월 실적 조건없이 0.7% 청구 할인 (모든 가맹점은 우리카드 잔상 상 등록 기준임)

대중 교통, 스타벅스·풀바셋 10% + 주유 시 리터당 최대 100원 청구 할인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제공 (실적/할인 제외는 상품안내장 참조. 단, 주유 할인 시 LPG는 할인 제외)

S-OIL, 현대오일뱅크 주유 시 리터당 100원 청구 할인 /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시 제공

·연회비 - 카드의 정석 DISCOUNT : MasterCard / VISA 12,000원, UnionPay 10,000원

·상세혜택 및 이용조건은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홈페이지(www.wooricard.com),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정상이자율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8-CII-07295호 (2018.06.25~2018.09.25)